1964년 불법 반출 불상 4점, 환지본처

미국 아시아미술관서 반환
크메르 양식 13~14세기 작품
태국 내 미술사서 중요 자료
"문화재 보호 적극 진행할 것"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으로 반환되는 불상 4구. 사진출처=NNT

1964년 태국 동북부 유적에서 불법으로 도굴된 4구의 청동 불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로부터 태국으로 반환된다. 반환되는 성보는 불상 1구와 보살상 3구로 모두 크메르 양식의 13~14세기의 작품. 이 반가운 소식을 지난 5월 4일에 태국 정부 미디어 'NNT'가 전했다.

1964년에 불법적으로 도굴된 4구의 청동 불상들은 태국 부리람주 챠롬프라키앗 지구에 위치한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오랜 세월 미국의 미술관이나 개인 컬렉터들의 소장품으로 전전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상들은 미국의 고미술상인 더글라스 래치포드의 계획 아래 도굴,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태국 문화부 예술국 측은 "해당 불상들에 대한 조사와 추적은 2017년부터 이뤄졌다"면서 "예술국 산하의 해외 태국문화재 환수위원회는 해당 불상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미국 국토안보 조사국(HSI)과의 제휴 아래 불상들의 반환 교섭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아시아미술관 이사회는 미술관 측에 반환을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4월 22일 이사회와 미술관 측은 불상의 반환과 함께 소장품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미술관 측은 "태국 예술국과 HSI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상들이 불법적인 거래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하며 미술관 측은 등록명 '카오 플라 이 밧 2의 조각품'인 4구의 청동불상을 태국 측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불상은 1구의 여래입상, 2구의 관음보살상, 1구의 보살상이다. 태국 예술국은 이 불상들에 대해 "크메르 미술의 영향을 받은 13~4세기 '프라콘 차이 양식'의 대표적인 작례"라면서 "이 양식은 크메르 미술의 영향에서 넘어가 태국 고유의 양식이 꽃피기 시작하는 양식으로 불상들은 태국 내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예술국 측은 앞으로 LA 주미 태국 총영사관을 통해 HSI, 아시아 미술관과 협력하면서 반환을 위한 최종적인 법적·물류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불상의 최종적인 반환은 향후 몇 달 이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회수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印불교도, 비하르 주지사 관저서 연좌시위

마하보디 사원 운영권 반환 요구
불응 시 시위강화…강경 항의도


비하르 주지사 관저 앞에서 연좌시위 중인 사부대중. 사진출처=ETV바라트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돌려달라는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약 350명의 사부대중이 비하르주 파트나에 소재한 주지사 관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 'ETV바라트' 등 현지 언론들은 불교계의 시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온전히 불교도에게 돌려달라는 시위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이 시위는 인도 내 많은 불교단체들이 연대해 진행 중이며 단식 투쟁과 거리 행진 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4일 시위대는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출발, 3일간 110km의 도보순례 끝에 파트나의 비하르 주지사 관저에 도착했다. 선두에서 불상을 머리에 이고 걸은 반테 수실 팔스님은 "정부는 우리의 사원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힌두교도들이 사원 관리에 관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힌두사원의 관리인에도 불교도가 없는데 왜 힌두교도들이 마하보디 사원 관리에 참여하는가?"라고 기자들에게 시위의 골자를 설명했다.

시위대는 약 2시간 가량 관저 맞은편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했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주지사는 관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됐으나 시위대를 만나진 않았으며 대신해 비서진이 시위를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했다. 관저에서 이뤄진 접견에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인도불교포럼(AIBF) 사무총장 아쇼크 라마 외 5인의 대표단이 참석, 비서진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요구사항과 현재까지의 상황이 담긴 각서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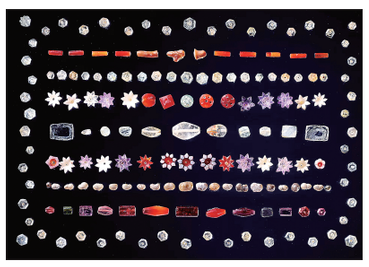
아쇼크 라마는 "비서진에게 우리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해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주지사가 하루 이틀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관련 담당자에게 AIBF가 작년 9월부터 주지사에게 공식서한을 전달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들 역시 "주지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AIBF와 인도 내 여러 불교단체들은 비하르 주 정부가 제정한 힌두교 중심의 보드가야 사원법을 폐지하고 불교성지와 주변 재산의 관리를 불교도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들은 "이 법이 종교적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아쇼크 라마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법률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소더비, 복장유물 경매 연기

인도, 334점 복장물 반환 요구
소유주 "정당한 상속물" 대립


소더비 경매에 올라온 피프라화 복장물 중 일부. 사진출처=소더비

진신사리와 함께 발견된 2000년 된 복장물 컬렉션 경매가 논란 끝에 연기됐다. 지난 5월 7일 '가디언지' 'BBC' 등 해외 주요 외신은 복장물 경매 연기 소식을 전했다. 인도 정부는 소더비 경매에 나온 복장물을 '불교 공동체의 양도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소더비는 경매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반환 요구를 넘어 제국주의 유산의 소유권과 동양 종교의 서구 소비 문화라는 두 축에서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경매에 나온 334점의 복장물은 자수정, 산호, 진주 등의 보석으로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 시기 진신사리와 함께 인도 북부 피프라와 불탑에 봉안된 복장물이다. 이 유물은 1898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인 토지 소유주 페페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후 4대에 걸쳐 그의 가문이 소장해 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를 "식민 수탈의 산물"로 규정하고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보석을 소유한 크리스 페페와 그 가족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상속'이라 주장하며 경매 수익 일부를 불교 기관과 인도 문화재 보존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는 이에 반발하며 보물법과 고대유물법 등 국내법에 따라 해당 유물의 국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더비는 현재 "인도 정부와 판매자 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했다"고 밝혔고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반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1300년 전 와불 아래서 보물 발견

부처님 부조판 2점 · 장신구 33점
불교 · 힌두교 종교 융합 시사


설법인을 갖춘 좌상(좌)과 삼존불 입상(우). 사진출처=태국 문화유산부

지난 5월 8일 고고학 전문 매체 '헤리티지 데일리'는 태국 불교 유물 출토 소식을 전했다. 해당 유물은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의 신앙과 예술, 문화적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왓 탐마짝 쎄마람 사원은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존재했던 불교 왕국 드바라바티 시기부터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곳의 대표적 유물인 와불상은 람부리 왕국 라마라자왕 치세인 657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찰 내 와불상을 보존하기 위한 구조 보강 작업 중 지하 1.3미터 깊이에서 점토 항아리 하나가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의 정밀 조사 결과 항아리 안에는 금·은·청동으로 제작된 33점의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발굴된 유물에는 금 반지, 은 귀걸이, 독특한 형태의 청동 장식, 나선형 귀걸이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주목받는 유물은 납과 주석 합금으로 제작된 부조판이다. 너비 8cm, 높이 12.5cm인 이 판에는 연화좌에 결가부좌로 앉아 설법인을 갖춘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 함께 출토된 삼존불 부조판은 좌측 협시보살이 힌두교 창조신 '브라흐마'의 태국식 형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예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대 타이 지역 불교 조형예술의 발전 양상뿐 아니라 고대 동남아시아 전역의 예술적 교류와 종교 융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